

아트인컬처
January 2014

ANNUAL REPORT

방식으로 보여 줬다. 매일 벌어지는 퍼포먼스,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은 일반 관객에게 동시대미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정진우). 최근 회자되는 ‘관계미학’을 퍼포먼스, 오브제, 관객참여 프로젝트 등 다각도로 실현한 전시였다(배명지). 콜라보레이팅/콜렉티브 큐레이션의 좋은 예시다. 명확한 주제 전달과 동시에 기획자/아티스트의 스펙트럼을 보여 주었다(신은진).

〈근대성의 새발견: 모던 떼끄놀로지는 작동중〉 옛 서울역이라는 전시 공간의 역사를 주제로 근대성의 의미를 되묻는 전시였다. 장소의 맥락과 주제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기획이라는 평을 얻었다. 문화역서울284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전시 주제로 끌고 와 한국의 근대성을 미술의 관점에서 풀어 낸 기획력이 탁월했다(김재환). 전시 공간이 지닌 정체성과 가치에 초점을 맞춰, 주제에 따른 다양한 학술적 논의를 거친 전시다. 인문학적 배경뿐만 아니라, 건축 무용 디자인 등과 연계한 논의가 관객의 호응을 얻어 내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안소연 평론가). 문화역284의 특수한 전시공간에 걸맞은 전시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재치 있게 보여 줬다(권근영). 한국 역사에서 근대가 지닌 가치와 의미를 작가의 상상력과 해석으로 재구성한 전시였다(윤진섭).

〈감각의 구축〉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한국작가 천대광과 슬로베니아 작가 토비아스 푸트리외의 2인전으로 ‘건축’과 ‘감각’의 관계를 탐구했다. 건축을 주제로 한 전시답게 공간을 잘 활용했다(정진우). 우리가 공간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경험을 다각도로 보여 줬다(정연심). 관객이 감각에 입각해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한 디스플레이가 탁월했다. 장소에 대한 기억이 예술로 재구성될 때 새로운 감각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현실화한 점이 핵심이었다(김재환).

〈올해의 작가상2013〉 국립현대미술관과 SBS가 공동주최로 매년 열고 있는 시상식 전시로, 공성훈 신미경 조해준 함양아가 참여했다. 터너프라이즈의 수상제도를 도입한 이벤트성 전시 컨셉트와 출품작가 4인의 작품이 볼거리를 더했다(김영호). 언론사의 프로모션이 현대미술을 활성화하는 데 얼마나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미술계의 관심이 쏠린 것만은 사실이다(최태만). 작가 선정 과정을 미술관 외부 인사에 개방하고, 선정작가 4명의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 재원을 지원한 점에서 중요한 전시다(이선영).

TOP 10 / SOLO EXHIBITION

원로 및 중견작가 선전
해외 작가 개인전 붐물
다채로운 프로그램, 관객 호응 높아

개인전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위 〈김구림: 잘 알지도 못하면서〉부터 〈그림일기: 정기용 건축 아카이브〉 〈김홍석: 좋은 노동 나쁜 미술〉 〈정서영: 큰 것, 작은 것, 넓적한 것의 속도〉 〈쿠사마 야요이: 내가 꿈 꾸〉 〈알렉산더 칼더: 움직이는 조각〉 〈소피 칼: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무라카미 다카시: 수퍼플랫 원더랜드〉 〈팀 버튼〉 〈제이크 & 디노스 채프먼: 이성의 잠〉 순이다. 상위 4위까지 한국 원로 및 중견 작가가 차지했으며, 그 뒤를 유명 해외 작가의 개인전이 이었다. 개인전도 작가와 큐레이터가 협력해 마련한 전시가 많은 추천을 받았으며, 작품의 예술성은 물론, 교육 학술 세미나 같은 전시 부대행사도 추천 점수에 영향을 미쳤다.

〈김구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서울시립미술관이 원로 작가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한 ‘SeMA Green’의 첫 전시로, 한국 1세대 아방가르드 작가 김구림의 회고전이다. 원로 작가를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 전시로 큰 호평을 받았다. 전시를 기획한 신은진 큐레이터는 “미술사에서만 남아 있는 작품을 관객에게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자료로만 남아 있는 일부 망실된 작품을 복원한 점은 미술사적 의의와 함께 교육적 의미를 더했다(고충환). 1970년대의 활발했던 젊은 시절의 실험적 경향의 미술을 다시 재연시켜 전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김구림의 예술 의욕이 넘쳐나는 전시였다(김성호). 도록에 실린 여러 필자의 학술적 논의는 한 작가와 한 시대를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안소연 평론가). 아직도 실험과 전위적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는 김구림의 작업을 체계적으로 보여 줬 후배 작가들에게 ‘작가주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교훈을 주었다(윤진섭). 재연된 작품이 많아 발표 당시의 긴장감이 포장된 느낌이었다(최태만). 심포지엄과 같은 본격적인 학술 논의로 잊지 못한 점이 아쉽다(정연심). 서양미술사와 한국 미술계를 비교하는 사대주의적인 측면이 매우 아쉬웠다(고동연).

〈그림일기: 정기용 건축 아카이브〉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건축가 정기용의 아카이브로 구성된 전시로, 수많은 자료와 어우러진 전시 디스플레이에서 많은 추천을 받았다. 전시를 담당하던 정다영 학예사는 ‘길과 풍경’을 컨셉트로 관객이 마치 산보하듯 전시장을 구성했다고 설명하면서, “정기용의 삶의 태도와 이 땅에서 건축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보여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고인의 유작에 관한 존경심이 진정성 있게 발현됐다. 건축전 또는 아카이브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만큼 정교한 디스플레이가 돋보였다(안소연 평론가). 현대건축가의 업적을 정리하는 기회일 뿐 아니라 장르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대미술의 면모를 보여 줬다(우혜수). 건축가 정기용의 삶과 작업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아카이브는 물론 작품전, 회고전, 추모전의 성격을 두루 갖춘 알찬 전시였다. 한 건축가의 삶과 문화 의식, 역사적 기억을 다루는 태도를 공감각적으로 재현했다(김정복). 작가의 건축 철학이 돋보인 전시였다(윤범모).

〈김홍석: 좋은 노동 나쁜 미술〉 플라토에서 열린 김홍석의 개인전으로, 현대 사회와 미술의 관계를 우회적으로 고발하는 작가 특유의 전략적 농담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견작가의 중간 회고전으로 의미 있는 전시였다(김성원). 김홍석 작품의 주제인 차용과 해석이라는 키워드를 직접 평론가의 참여를 통해 재미있게 반영한 작가 주도의 기획이 흥미로웠다(윤진상). 현대미술의 윤리적 문제, 작품 제작과 관련된 노동의 문제를 특유의 위트 있는 작업으로 담아냈다(정진우).

LIST 100 전시 구성 분포도

① 전시 유형별



② 참여 작가별



③ 전시장 지역별



④ 전시장 형태별



현대미술의 바깥에 있다고 간주된, 그러나 늘 안쪽에 자리한 윤리의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고 그 상관항을 질문했다(민병직). 미술관이라는 공적기관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보여 준 모범적 시도!(김윤경). 미술이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했다(임창섭).

〈정서영: 큰 것, 작은 것, 넓적한 것의 속도〉 조각의 인식론적 지평을 확장한 정서영의 개인전으로 일민미술관에서 열렸다. 공간을 유희하는 능란함을 과시한 작가의 말년성이 빛을 발한 전시였다(임근준).

군더더기 없는, 시(時)적인 전시(안경화). 사물을 보는 감각과 이성을 동시에 자극하면서도 예상을 빚나가는 장치들 덕에 오랜만에 전시를 보는 즐거움을 느꼈다(김해주). 한국 중견작가의 작품 세계를 성실하게 되돌아보는 전시로 풍성한 내용의 도록 출간과 병행하여 의미를 더했다(우혜수). 1990년대부터 시작된 작가의 사유와 연구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정진우). 오래된 미술사의 한 챕터를 열어보는 인상을 주지만, 조각적인 물성과 개념을 결합하는 작가의 꾸준한 행보가 인상적이었다(고동연).

〈쿠사마 야요이: 내가 꿈 꾸는〉 대구미술관에서 마련한 대규모 개인전으로 지역미술관이라는 한계에도 작가의 명성과 여름 방학 기간 특수와 맞물려 33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일본 전위미술 작가 쿠사마 특유의 땡땡이 문양과 패턴을 이용한 편집광적인 판타지를 열어 보인 전시(고충환). 신비로운 예술가상과 맞물려 물밀듯이 관객의 발걸음이 이어진 전시였다. 언더의 정신이 주류가 되고, 세속의 것이 되는 미술사의 과정을 한 작가의 작품을 통해 여실히 드러냈다(김성호).

〈알렉산더 칼더: 움직이는 조각〉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기획한 알렉산더 칼더의 대규모 회고전으로, ‘모빌’로 조각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그의 작품 세계 면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시 연출과 작품성, 작가의 삶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풍부한 아름다운 전시(유진상). 작가의 명성과 ‘모빌’이란 작품의 특성 때문에 많은 관객을 모았다(최태만). 칼더의 잘 알려지지 않은 초기 작업과 작업 과정을 보여 준 영상, 재단 소유의 작업이 골고루 전시돼 미술교육적 가치를 띠었다(정연심). 작가의 창작 생애 전체를 잘 조망해 준 전시였다(하계훈).

〈소피 칼: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313아트프로젝트에서 열린 프랑스 개념미술가 소피 칼의 국내 첫 개인전. 난해한 개념미술과 그 작가에게

일반 대중이 이처럼 높은 호응도를 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타인(혹은 현대미술)과 나(혹은 관객)의 거리를 ‘인생’이라는 통상적인 키워드로 축약시킨 전시(이단지). 국내 인지도에 비해 작품 감상의 기회가 드물었던 작가의 개인전이라 더욱 돋보였으며, 작품 텍스트를 꼼꼼하게 번역한 준비성이 전시 관람을 도왔다(안소연 평론가). 작품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전시였다(안경화).

〈무라카미 다카시: 슈퍼플랫 원더랜드〉 아시아 미술관에서 처음 열리는 무라카미 다카시의 회고전으로 플라토에서 열렸다. 그의 초기 작품부터 최근작까지를 한자리에 모았다. 일본 팝아티스트, 다카시가 왜 유명한지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 냈다(곽아람). ‘재팬팝’ 내지 ‘마이크로팝’의 대표작가로서, 오타쿠와 애니메이션, 망가와 컬트(잔혹)가 믹스된 일본 현대미술의 문화적 베이스를 엿보게 한 전시(고충환). 무라카미 다카시의 진면목을 보여 주는 성실한 전시와 그를 구현해 낸 큐레이터십이 훌륭했다(임근준).

〈팀 버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영화감독 팀 버튼의 작품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해외 순회 회고전. 영화인으로서만 알려진 작가의 폭넓은 세계를 다양한 접근으로 다가가기 쉽게 구성한 전시. 현대문화의 일부로 팀 버튼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우혜수). 그의 인생 스토리와 드로잉과의 접점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전시였다. 그러나 기획사가 해외 미술관에서 들여온 전시가 서울시의 대표 미술관에서 미술관이 대표 전시로 열었다는 점은 반성해야 마땅하다(권근영). 보기 어려운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기획으로 미술의 개념을 문화로 확대한 전시라 평가할 수 있다(임창섭).

〈제이크 & 디노스 채프먼: 이성의 잠〉 ‘yBa’를 대표하는 채프먼 형제의 국내 첫 개인전으로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유명 해외 작가의 작품 세계를 직접 만나 볼 수 있는 드문 기회였다(서진석). 미술과 현실, 미술과 정치에 관해 많은 생각을 유도한 전시(고충환). 전쟁, 대량 학살, 섹스, 죽음과 소비지상주의에 대한 주제를 능수능란하게 다룬 영국 현대미술의 스타 작가 전시(양지윤). 미대생의 롤모델처럼 간주되는 채프먼 형제의 내한에 힘입어 관객몰이에 성공했다. 이중혼성, 그로테스크, 차용, 패러디, 통제 없는 예술 표현 의지가 넘실대는 작품에는 모두가 선망하는 예술가의 표상이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표출되고 있었다(김성호).

LIST 100 / EXHIBITION MAP

미술관 전시, 개인전, 수도권 주축
작품성뿐만 아니라, 전시 컨셉트 명확해야
온라인 전시 홍보 강화

36인의 앙케트 참여자가 추천한 전시 중 기획전, 개인전 Top 10을 선정한 나머지 전시를 소개한다. 2회 이상의 중복 추천을 받은 전시를 주축으로 기타 Art에서 선정한 전시를 수합해 ‘LIST 100’ 만들었다. 이 전시 리스트는 2013년 한국 전시의 주요 트렌드를 살필 수 있는 지표라

TOP 10 개인전 부문은 1~4위를 한국작가, 5~10위를 해외작가가 차지해 양분된 양상을 보였다. 김구림, 정기용, 김홍석, 정서영 등 확고한 작품 세계를 보여 준 원로나 중진작가가 저력을 과시했다. 그 중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전시는 원로작가를 재조명하기 위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획한 'SeMA Green'의 첫 번째 프로젝트 <김구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건축, 공예, 디자인 등 장르별 특화 전략의 일환으로 열린 <그림일기: 정기용 건축 아카이브>. 국제적으로 지명도 높은 해외작가의 한국 첫 개인전이 그 뒤를 이었다. 소피 칼, 제이크 & 디노스 채프먼 등 '스타 작가'가 잇따라 내한하면서 수많은 취재진이 몰리기도 했다. TOP 10 개인전은 작가 강연과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열려 관객 호응도 역시 높았다. 전시 유형으로는 <알렉산더 칼더>전처럼 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꼼꼼하게 회고하는 미술사에 기반을 둔 개인전이 두드러졌다. 블록버스터급 개인전으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팀 버튼><쿠사마 야요이>전은 평단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쿠사마 야요이><무라카미 다카시>는 상반기 일본미술 기획전의 여세를 몰아 큰 주목을 받았다. 기관별로는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일민미술관 등 TOP 10 기획전에 선정된 전시장이 개인전에서도 많은 추천을 받아, 기관별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플라토는 <김홍석><무라카미 다카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개인전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밖에 지역 미술관으로는 대구미술관, 갤러리로는 313아트프로젝트, 복합문화공간으로는 송은아트스페이스가 상위에 랭크됐다.

- ① 김구림: 잘 알지도 못하면서
- ② 그림일기: 정기용 건축 아카이브
- ③ 김홍석: 좋은 노동 나쁜 미술
- ④ 정서영: 큰 것, 작은 것, 넓적한 것의 속도
- ⑤ 쿠사마 야요이: 내가 꾸 꿈
- ⑥ 알렉산더 칼더: 움직이는 조각
- ⑦ 소피 칼: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 ⑧ 무라카미 다카시: 수퍼플랫 원더랜드
- ⑨ 팀 버튼
- ⑩ 제이크 & 디노스 채프먼: 이성의 잠

③ 김홍석: 좋은 노동 나쁜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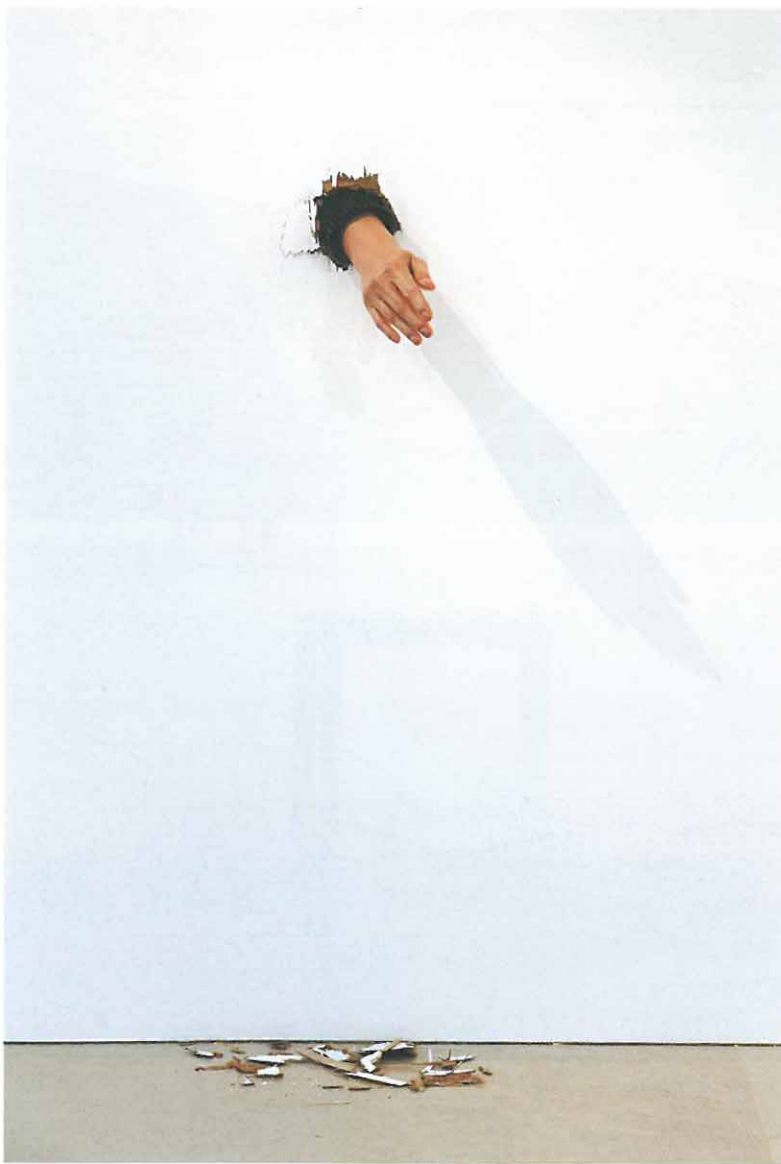
3. 7-5. 26 플라토

번역, 차용, 픽션 등의 우회적 전략으로 사회 현실과 현대미술에 관한 문제의식을 신랄하게 드러내 온 김홍석의 개인전. 전시제목 〈좋은 노동 나쁜 미술〉은 각 단어를 구두점 없이 나열함으로써 차별화된 영역 사이의 교환과 공존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가의 작품세계를 함축적으로 반영한다. 동명의 신작은 〈자소상〉과 〈걸레질-121107〉(2012)이란 회화 작품을 3명의 비평가가 논의하는 강연 퍼포먼스로, 타인의 지적 노동과 경제적 보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조명했다.

〈좋은 비평 나쁜 비평 이상한 비평〉〈자소상〉〈걸레질-121107〉
2013

오른쪽 페이지
왼쪽 · 〈수줍게 악수를 청하는 남자〉 마네킹, 옷, 신발, 레진,
합판 85×53×186cm 2013
오른쪽 · 〈기울고 과장된
형태에 대한 연구-LOVE〉 레진
90×150×348cm 2011





“김홍석의 작품이 탈물질화한 오브제를 벗어나 전시장 자체를 비평의 담론장으로 출현한다면, 굳이 미술관 내에서만 다뤄질 필요성이 있을까? 전시되지 않는 예술, 시각중심주의 예술에서 미끄러져버린 과정에 관한 비평적 질문, 그것이 김홍석의 작업이다.” / 정연심 <미술관을 ‘공론의 장’으로> 4월호 FOCUS